

◇ 주요 폐절제술시 이환율과 사망율을 예견하는 위험인자의 평가

최호, 이철주, 소동문, 류한영, 김영진, 문광덕, 노환규, 김정태, 강준규,  
홍준화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** :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전의 일반적인 위험인자와 폐기능검사치를 토대로 주요 폐절제술시 초래되는 수술 합병증을 예견할 수 있는 인자를 평가하고 폐활량측정법[Spirometry]과 폐확산능검사 [Diffusing Capacity for Carbon Monoxide, DLCO]를 비교하여 대표적인 측정 척도와 그 기준치를 설정하여 임상에 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.

**방법** : 본 연구는 1994년 6월부터 1998년 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아주대학교 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폐암, 기관지확장증, 그리고 폐절핵등으로 주요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1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5개의 수술전 또는 수술중 위험인자와 19개의 수술후 합병증을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연구하였다. 19개의 수술후 합병증은 사망율 및 호흡기, 순환기, 그리고 기타 합병증 네가지로 분류하였고 수술전 또는 수술중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 $\chi^2$ 검정을 사용하였다.

**결과** : 단변량분석[Univariate analysis]에 의하면 연령, 성, 고혈압, 흡연력, 체중감소, 절제범위등이 수술합병증 발생율에 다소 영향을 주지만 통계학적 유의성( $p < 0.01$ )을 보이는 인자로는 체중감소가 호흡기와 순환기이환율에, 흡연력이 호흡기이환율에, 절제범위가 사망율과 순환기이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에 대부분의 폐확산능검사치는 호흡기및 순환기이환율과 유의성을 보이고, 특히 술후예측폐확산능백분율[ppoDLCO%]은 호흡기[ $p < 0.009$ ], 순환기[ $p < 0.003$ ], 전체 이환율[ $p < 0.004$ ]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한 단변량모델 [Univariate Model]에서 수술합병증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인자는 ppoDLCO%로 평가되었으며, 호흡기, 순환기, 전체 이환율의 발생빈도와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.

**결론** : 폐기능검사중 폐확산능[Diffusing Capacity for Carbon Monoxide, DLCO]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활량측정법[Spirometry] 보다 술후 합병증을 예견하는데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인자로 평가되었다.

책임저자:최호(아주대학교) 발표자:최호(아주대학교)